

## 새로운 종교운동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흐름: 한국의 종교를 중심으로

안 신(배재대학교)

### 1. 서론: 대화를 위한 한국종교의 이해

한국에서 종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서’(religion as a religion) 인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를 ‘특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고백적으로 연구하는 흐름에서는 자기 종교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교를 ‘불자의 관점과 교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기독교인의 관점과 신학의 차원에서’ 신행(信行)하고 연구하는 일은 신앙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다문화 다종교 다종교의 시대에 개별 종교들은 통렬한 자기비판이 가능할 때 종교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종교들은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 공공성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한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무종교(無宗教) 혹은 비종교(非宗教)의 증가 현상이다. 세계의 종교인구는 85%에 육박하지만, 한국의 종교인구가 10년 사이에 44%까지 급감하였다. 북유럽과 북미에 기독교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무종교 인구가 56%로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개신교(19.7%), 불교(15.5%), 천주교(7.9%)가 3대 종교를 구성한다. 개신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1885년에 귀국한 이래로 135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교육과 의료 분야의 선교를 통하여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도왔으며, 근대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교회의 보수적 정치화와 대형교회의 자본주의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왜 감소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종교학자들은 제도종교에 대한 불신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한국 사회에 근대화와 민주화 등 긍정적 기여를 하였지만, 교회 운영의 투명성과 성직자의 도덕성 및 교회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국내확산에 대하여 신천지의 공격적 선교방식과 보수 개신교의 정치화에 대하여 대중과 여론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2. 한국 종교의 자본주의화

70년 전 1950년에 한국전쟁의 발발로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나뉘었다. 1972년에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72)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들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보장받았다(제54조). 1992년의 개정된 헌법의 제68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여 종교건물과 종교의식을 허용하지만 외국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사회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제68조). 북한의 종교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종교는 어용(御用) 기관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산주의의 유물론적인 이념 아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의 삼대 독재체제

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의 하나님/하느님과, 불교의 부처님이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의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종교시설들은 평양직할시에 집중되어있으며, 개신교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천주교의 장충성당, 정교회의 정백사원, 불교의 정릉사 등이 있다. 대외적 관계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전매체라는 평가가 있지만, 사회주의 독재국가에 종교의 가시적 현존은 맥락적 이해를 해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사회주의의 맥락에서 북한의 종교는 주체사상에 맞게 진화하였다.

북한과 달리, 한국에서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신행(信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서울대 윤이흠 교수는 한국사회를 “종교박물관”으로 간주하였지만, 종교적 갈등과 마찰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종교인구가 44%까지 급감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세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에서 신천지(新天地)와 같은 소종파는 한국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으며, 개신교와 불교와 같은 주류종교의 모임에서도 집단감염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천주교인들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가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인구의 99%에 이르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의 양대종교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호남지역에는 개신교가, 영남지역에는 불교가, 수도권 지역에는 천주교의 교세가 강하다.

중국에서 유교(儒敎)가 종교라기보다는 사회의 전통문화로 수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교를 하나의 종교로 신행하는 신자들도 있다. 불교와 기독교는 물론 제도종교는 아니지만 그리스·로마의 인본주의도 한국사회에 공존한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해외 교류와 외국인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 바하이신앙, 기적수업, UFO종교 등 다양한 외래 종교들이 한국사회에 유입되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천주교는 단일한 최대교단이지만 개신교의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루터교, 성공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불교의 경우에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으로 교파적 다양성을 드러낸다. 이외에도 샤머니즘(巫俗)과 같은 민속종교들이 있으며, 천도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통일교 등 민족종교들이 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악영향을 주는 종교들이나 종교인들도 있다. 바하이신앙의 사례처럼 ‘점진적 계시’의 관점에서 상대적 진리관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종교들은 신념체계를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상대화한다. 종교는 이웃 종교만을 상대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등 다른 모든 문화 현상을 상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화의 논리와 추세는 다종교상황에서 공존과 상생의 명분을 위해 제한된다.

한국에서 정부의 개입과 통제 없이 다양한 종교들이 경쟁과 갈등의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단일한 종교가 주도하는 국교체계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에서는 종교가 정부의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에서는 정교분리와 국교금지의 헌법규정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종교 간 관계와 경쟁의 밑그림을 제공한다.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는 종교의 순수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시장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고 개별종교들을 상품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개신교는 거대교회의 모델을

지향하고 시장논리에 따라서 개종과 교회건립을 강조하는 공격적인 선교나 포교를 진행한다. 종교의 지나친 배타성과 절대성의 논리가 ‘관용과 배려의 종교’를 ‘억압과 강요의 종교’로 변질시키고 있다. 세계인구의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지도와 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처럼 한국에서도 제도종교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현대사회의 상업주의와 팽창주의는 인간의 전인적인 성격을 축소하여 경제적 존재, 정치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하면서, 삶과 우주의 의미에 대한 영성적 꿈꾸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에서 영성을 포함한 전인적 건강을 회복한 인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교적 세계관에서 상대적 가치의 문제는 생소한 담론이다. 종교의 신념과 의례에 나타나는 절대성의 문제는 단순히 포기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선택이다. 오히려 종교는 그 절대성을 유지하면서 이웃 종교들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진작시켜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북한의 종교현상과 종교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북한의 종교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종교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북한의 종교들을 중심과 정체성을 상실한 ‘어용(御用) 종교’나 ‘사이비(似而非)종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맥락에서 가능한 형태의 종교로 간주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조선 시대에 유교 외에 외래 종교를 ‘사교(邪教)’로 규정했듯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규모가 큰 거대종교들은 보수주의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소수종교들을 ‘이단(異端)’으로 간주하고 ‘악마’로까지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와 함께, 왜곡된 가치판단과 선입견을 수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노력이 병행되어 왔다.

### 3. ‘새로운 종교현상’에 대한 공감적 이해

유교의 가치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서구사회로부터 유입된 천주교와 개신교는 박해와 경계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천주교의 순교(殉教)와 개신교의 선교(宣敎)에 대한 경험은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종교적 보수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현대 한국사회는 여러 종교에 대하여 다원주의(pluralism)의 모델을 지향한다. 모든 종교의 가치가 균일하고 세계관이 평행하다는 설명은 다원주의의 틀 안에서 ‘절대성의 종교’를 ‘상대성의 종교’로 타락시킨다. 종교의 세계관들은 신자들에게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로 귀의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 실재는 기독교(천주교/개신교)의 하느님/하나님, 불교의 부처, 이슬람의 알라, 원불교의 일원상, 바하이신앙의 바하올라, 시크교의 구루 등 여러 이름으로 명명되지만, 특정한 종교가 독점할 수 없는 대상이다. 다원주의의 관점은 특정 종교만을 유일한 진리로 주장하는 배타주의(exclusivism)와,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일부만 인정하는 포용주의(inclusivism)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다원주의도 진리의 상대성 문제를 초래하므로 특정 종교를 신행하는 신자의 신앙을 무용하게 만든다. 한국의 종교감소는 지나친 팽창주의와 배타주의의 역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팽창주의는 논리적 모순을 경험하며 ‘소극적 신앙인’의 유형을 양산한다.

한국종교학회(韓國宗敎學會, 회장 박광수)와 한국신종교학회(韓國新宗敎學會, 회장 신광철)는 새로운 종교운동들에 대한 공감적이며 객관적인 이해와 설명을 시도해 왔다. 기독교학회, 불교학회, 도교학회, 이슬람학회 등과 같이 특정 종교로 제한된 개별 종교(a religion)에 대한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성 종교들과 신종교들에 대한 광범위하며 창조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0년 전인 1970년에 한국종교학회가 처음 창립되었고 처음 출판된 학술지부터 신종교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서울대 장병길은 신종교의 신관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유형론으로 병립(併立)적 포함(抱合), 상즉(相卽)적 포함, 합산(合算)적 포함, 여즉형(如則型)적 포함, 유출(流出)적 포함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종말에 대해서도 자력에 인한 구제와 신력에 의한 구원이 결합된 복수적(複數的) 포함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장병길, 1972: 57-58). 한편, 한국신종교학회는 기독교와 불교 등 기성의 거대종교보다는 소규모의 새로운 종교운동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1999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신종교학회는 신종교단체의 리더들과 종교학자들이 함께 국내외학술대회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한국종교학회와 다르다. 이 학술단체는 원불교, 대순진리회, 통일교의 신종교 관련 재단이 운영하는 원광대, 대진대, 선문대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문학, 사학, 철학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문학자들이 참여하며, 최근에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연구를 접목하고 구체적인 문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신종교들을 내부자와 외부자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연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신종교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살펴보면, 선민의식과 다문화주의, 종교조직, 문화콘텐츠, 복식, 성소, 음식, 외국신종교의 한국사회이식과정, 세계화시대의 한국민족주의와 신종교, 세계화시대의 신종교, 한국신종교의 생사관과 의미, 여성, 포스트모던사회와 한국신종교 등이 기획논문으로 실렸다.

#### 4. 결론: 공동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종교지형과 신종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학문적 노력을 살펴보았다. 사회주의의 맥락에서 북한은 사회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해 종교의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제한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교분리와 국교금지를 헌법에 명시한 한국에서는 종교연구자들이 기독교와 불교의 양대종교를 넘어서 새로운 종교들을 보다 객관적이며 공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종교에 대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는 북한의 종교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문화 전반을 보다 더 체계적이며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